



姜東求

청주교도소근무  
청주시테니스협회상임부회장  
행복한시인모임 충북연합회장  
월간 모던포엠 편집위원

# 샛강

예약 된 수순  
태고(太古)를 향한 지름길  
정맥 깊숙하게 철침을 박아  
차가운 철심장속으로  
피를 흘려보내야 할 샛강  
욕망에 찌든 검붉은 피를  
몽땅 비워내는 일이다

인공신장실 가득한 샛강  
험한 세상 함부로 떠돌다 온  
흔탁한 피돌기  
처연(淒然)한 세월을 몽땅 흘려보내면  
다시 환생하는 가벼움  
죽음을 다 토하는 황홀함  
삶과 죽음의 경계 반투과막\*

내 마음 샛강 천궁\*(天宮)으로 떠오르는 날  
함부로 사모하는 꿈과 현실의 경계  
나의 꿈 모두 너에게 보내  
오염된 내 순수를 투석하는데  
운명 반투과막을 통과할 수 없는  
치사랑의 그리움  
네 가슴팍에 흘려보내고  
오늘은 온전히 죽어 보는 일이다

\*반투과막 :

신부전증 환자가 일주일에 3회  
하루 4시간씩 온몸의 피를 다  
쏟아내어 혈액투석기의 반투과막  
을 통해 혈액 속 노폐물을 여과  
시켜 제거하는 것을 혈액 투석  
이라 한다.  
반투과막에 적혈구, 백혈구,  
혈장, 단백질 등은 작은 구멍을  
통과하지 못하고 전해질 및  
노폐물은 細孔을 투과하여  
제거되는 원리로 전국적으로  
약 5만 명이 넘는 환자가 혈액  
투석치료를 받느라 힘겨운 삶을  
살고 있다

\*천궁 : 무지개